

# 선교 매트릭스

TMTC15기 김문철

선교 매트릭스, 책의 이름을 보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매트릭스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의문이었다. 매트릭스하면 떠오르는 것은 영화 ‘매트릭스’다.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다가 문득 이 세계에 이질감을 느낀 주인공,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모피어스 등의 인물들에 의하여 이 세계가 아닌 진짜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내용의 영화 ‘매트릭스’였다. 저자의 의도가 분명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책 또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선교’라는 또 다른 세계를 방대하게 설명하려는 책인 것은 같았다.

저자는 평소 선교에 대하여 이론적, 실재적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던 것 같다. 글은 한 번에 작성하여 써 내려갔다기보다는 평소 선교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하여 고민하며 써 내려간 쪽글을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글을 추가하여 완성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기에 이 책을 한 번에 읽어내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 다루는 내용이 방대하여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읽었을 때는 ‘선교’라는 세계를 처음 접하는 나에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먼저 선교와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TMTC 강의를 들으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용어들(예. 시니어 선교, 선교적 교회, 멤버케어, 국내 이주민 선교 등)을 이 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선교에 초보자와 같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얻을 수 있었다. TMTC에 지원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는 선교에 대하여 초보자이다. 아마도 TMTC에 지원한 분들은 저마다 다른 관심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각자에게 이 책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에 분명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난 선교 초보자로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 ‘멤버케어’ 부분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주변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고 있으면서 삶의 분주함을 핑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재적인 선교 사역이 먼저는 이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로 선교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선교에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람의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지만, 그 선교의 주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선교의 원형은 ‘안디옥 교회’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얻었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떠나 할 일(선교)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그 사역과 열매를 나눴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다시 떠날 힘을 얻었던 것 같다. 선교사는 바울이었지만 사실상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였다. 교사선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단지 그 사람 개인의 소명이 아님이 분명하다. 교사선교회 공동체의 소명이며 그것을 일선에서 감당하는 이가 그 선교사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선교사를 돌아보고, 물어보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이야기 글이라기 보다는 저자 한 사람이 선교의 각 부분을 소개하고 개인의 생각을 정리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냄으로 인하여 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생겨났고, 또 다른 책을 읽어볼 생각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 선교사가 되려면

TMTC15기 김문철

교사선교회는 궁극적으로 교사선교사를 양육하여 교육계에 파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공동체다. 따라서 교사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TMTC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책을 선택하고 읽게 되었다.

이 책은 거침없이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 해 나간다. 저자인 오스왈드 스미스는 선교에 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현지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이 막히자 그는 선교대회 등을 통하여 작정 헌금을 모아 선교지의 사역을 돕는 간접적인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 그런 삶을 살며 선교에 대하여 "직접 가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현지 선교사가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선교가 특별한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해외 선교사가 되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나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었다. 교사선교회의 회원으로서 '선교'라는 단어는 항상 나에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선교'의 사역이 직접 나가는 것 말고도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참 반가운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인 것 같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사실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선교의 사명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살고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 나라, 영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이 일이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나라로 보내실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분이셨다. 그렇기에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면 먼저 그곳을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품게 하실 것이며, 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보내실 그곳에서 나는 퍼즐 조각처럼 딱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싶다.